

전남대병원 신준현 간호사, 조혈모세포 기증

‘결혼 앞두고’ 2만분의 1 확률 일치한 혈액암 환자에 기증

결혼을 앞둔 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흉부외과에서 근무 중인 신준현(31) 간호사는 2013년 대학시절 교내에서 장기기증과 조혈모세포 기증을 홍보하는 부스에서 기증 신청서를 작성했다. 간호대학에 다니는 예비 의료인인 만큼 기회가 되면 선의를 베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혈모세포 기증은 환자와 기증자 간 조직적합성항원(HLA) 유전 형질이 일치해야 하는데 이 확률이 2만분의 1에 불과하다. 10여 년이 지난 올해 3월 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혈액암환자와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땐 곧바로 결심할 수 없었다. 결혼 7개월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기 때문이다.

신 간호사는 “유전자가 동일한 혈액암 환자에 조혈모세포 기증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 고민스러웠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예비신부와 부모님,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기증



을 결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 간호사로 근무 중인 여자친구는 물론 부모님과 동료들도 신 간호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 준 덕분에 최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말초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신 간호사는 “수혜자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기쁘다. 평생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을 하는 분들이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포토뉴스



이기식 병무청장, 광주전남병무청 정책현장 방문 이기식 병무청장은 29일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현장을 찾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청장은 업무보고를 받고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와 순천복무관리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용범 기자

신안 윤인자씨, 대한민국 장류발효대전 최우수상 수상

고추장부문 최우수상...신안군 2년 연속 수상 쾌거

신안 윤인자씨(압해읍)가 제4회 대한민국장류발효대전 고추장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제4회 장류발효대전은 사단법인 한국장류발효협회 주최한 대회로서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홀 대강당과 북인사마당에서 19일에 시상식이 열렸다. 여기에 출품한 ‘신안배귀리고추장’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신안배와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신안천 일일, 양질의 황토판에서 자란 귀리를 메인으로 신안지역 친환경농산물



을 이용해 우리 전통 고추장의 맛을 제대로 보여줬다. 윤 대표는 오랜 시간 음식개발과 전통발효장류, 장아찌 등에 관심을

갖고 개발해 판매하다가 지금은 후배양성에 전념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한국문화예술명인회에서 고추장명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특히, 윤인자씨로부터 작년에 전수 받은 전진자 대표가 신안배고추장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신안배귀리고추장을 출품해 최우수상을 거머쥐어 2년 연속 수상으로 신안의 맛깔나는 명품 고추장을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한 몫을 해냈다. 수상소감으로 “이번 수상은 50여 년 넘게 음식 개발에 힘써온 값진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후배양성을 위해 많은 조리법을 개발하여 전수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신안박경태 기자

동구민상 수상자 3명 선정 10월 총장축제서 시상 예정



(왼쪽부터)김영초·여근수·황영성씨

동구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동구민 3명을 올해의 동구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동구민상은 지난 22일 개최된 동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사회·봉사 ▲문화·체육 ▲지역·경제 등 각 부문별로 1명씩 모두 3명을 선정했다. 사회·봉사 부문은 김영초 아동일시보호소 ‘민들레’ 이사장이 선정됐다. 문화·체육 부문은 황영성 조선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지역·경제 부문에서는 여근수 총장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개최하는 ‘제19회 추어의 총장축제’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광주제일고 학생들이 ‘의로운 행동으로 표창장 받아’

‘유대환·최민혁’ 공원서 성추행범 쫓아 여중생들 구해



봉선동의 한 공원에서 성추행을 당하던 여학생을 목격하고 신속하게 신고, 더 큰 사고를 막는데 기여한 고등학생들이 표창장을 받았다. 29일 광주제일고등학교에 따르면 광주남부경찰서가 지난 28일 광주

제일고 교장실에서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유대환, 최민혁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유 군과 최 군은 지난 4일 오후 6시경 봉선동의 한 공원에서 여중생들이 낚선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해 나선 경찰관에게 여학생들의 상태, 현장 위치를 휴대전화로 알리고, 현장에서 해당 남성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추격하는 등 신속한 사건 해결을 가능케 했다. 유 군과 최 군은 “여동생 또래의 여학생들이 피해받고 있는 사실에 무심하다는 생각보다는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행동한 결과”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온다면 망설임 없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청소년계 조은섭 학년팀장은 “입시를 앞둔 고 3수험생임에도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관심과 용기가 대견하다”며 “남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세상에 큰 도움을 준 광주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세상은 아직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느꼈다”며 감사의 인사도 함께 전달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전남화물협회 차량 사고 피해가족에 기부



광주·전남화물협회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위해 써달라며 400만 원을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후원했다.



광양제철, 전남지체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 광양제철소 공정품질부문이 지난 27일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광양=조순익 기자



MG 새마을금고 ‘MG 온(溫)택트 지원세트’ 나눔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나민희) 좋은이웃들 봉사단은 지난 27일 MG새마을금고가 후원한 온(溫)택트 지원세트 나눔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빈곤으로 인해 결실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MG 새마을금고(이사장 이찬태)의 지원으로 좋은이웃들 대상자에게 MG(Make ToGether) 일상회복을 위한 온(溫)택트 지원사업으로 추진됐다. /무안=박태연 기자

시민종합복지관·LH양산지원센터 입주민 정서관리 프로그램

시민종합사회복지관과 LH광주양산주거복지지원센터는 양산주공아파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정서관리 프로그램인 기억지킴이, 그림그리기, 책 읽어주기 등 정서관리 및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전문강사님을 모시고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하신 어르신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흥미롭고 진지하게 임했으며, 삶의 질이 향상 되는 여



러가지 정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실 것을 희망했다. /김용범 기자

광주 장애학생 e페스티벌 온라인 대회

우승 학생, 광주 대표로 전국대회 출전...9월 6~7일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8~29일 2022 광주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9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광주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화능력을 신장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경진 및 e스포츠 분야로 나뉘어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각 소속 학교에서 원격시스템으로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온라인중계시스템(ZOOM, OBS Studio)을 통해 대회 참가 모습을 운영본부에서 실시간으

로 중계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를 동안 분산 운영했다. 대회는 정보경진 분야의 소프트웨어(SW)코딩, 스마트 검색 등 2개 종목과 e스포츠 분야인 클레시모양, 펜타스톤 등 2개 종목으로 구성, 총 4개 종목으로 운영됐다. 관내 12개 학교의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 등 26명이 출전해 그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한편 우승한 학생은 광주 대표로 오는 9월 6~7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리는 ‘2022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출전하게 된다. 시교육청 신미숙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2022 광주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주)현이네사람들, 순천 서면에 라면 나눔

어려운 이웃에 컵라면 2000개 기탁...나눔 실천 앞장



(주)현이네사람들은 지난 28일 순천시 서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150만원 상당의 컵라면 2000개를 기탁했다. (주)현이네사람들은 2005년에 설립되어 폐지·고철 등 각종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업체다. 작년 4월에도 한부모 및 독거노인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라면을 기탁했으며, 평소에도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이날 기탁된 컵라면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서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한부모가족과 어려운 이웃에게 골고루 전해질 예정이다. 김원호 대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여는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작은 정성이지만 사랑의 온기가 전달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용강도서관,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선정

치매도서관코너·관련 간행물 비치·전 구성원 교육 이수



광양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8일 광양용강도서관을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하고 현관 전달식을 가졌다.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은 접근성이 좋은 공공도서관에 치매 관련 도서와 간행물을 비치해 시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 친화적 문화 확산과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광양용강도서관에서는 치매도서관코너를 설치하고, 치매

시간도서와 치매센터 간행물 등을 비치해 치매극복을 선도할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동참하게 된다. 용강도서관에서는 지정요건에 맞춰 전 직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했고, 2층 종합자료실 내부에 독립된 치매도서관코너를 마련해 치매극복 관련도서 30여 권과 큰 글자 도서 90여 권, 치매센터 간행물, 홍보물 등을 비치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지역주민이 치매 관련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했다. /광양=조순익 기자